

ITWorld
How To

윈도우 8 초보탈출 가이드

“타일 화면 말고 데스크톱 화면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종료 버튼은 어디에 있지?”
“사용자 설정은?” 시작화면부터 생소하기만 한 윈도우 8. 하지만 몇 가지만 알아두면 생
각보다 쉬울 수도 있다. 유용한 단축키부터 설정, 공유 기능, 그리고 제일 먼저 설치해야
할 필수 앱까지, 이 가이드를 참고하면 빠르게 윈도우 8에 적응하고, 초보딱지를 뗄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20가지 윈도우 8 팁과 트릭

제일 먼저 다운로드해야 할 윈도우 8 앱 10선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본 PDF 문서는 IDG Korea의 프리미엄 회원에게 제공하는 문서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IDG Korea의 허락 없이 PDF 문서를 온라인 사이트 등에 무단 게재, 전재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20가지 윈도우 8 팁과 트릭

Jon Phillips, Ales Cocilova, Loyd Case | PCWorld

윈도우 8에는 숙련된 PC 사용자도 당혹스럽게 하는 기능과 특징들이 많다.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능은 별로 없다. 게다가 윈도우 8은 터치 컨트롤을 가장 염두에 두고 설계된 탓에 마우스와 키보드 명령의 상당수가 나중에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가장 즐겨 사용하는 윈도우 8 단축키와 트릭, 문제 해결 방법들을 모았다. 많은 내용이 전통적인 데스크톱 PC에서 윈도우 8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제 사용하기 쉬운(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윈도우 8 단축키 명령부터 찾아보자.

가장 유용한 단축키들

다음은 윈도우 키(보통 Alt 키와 Ctrl 키 사이에 있음)를 누른 채로 다른 키를 누르는 조합을 통해 실행하는 명령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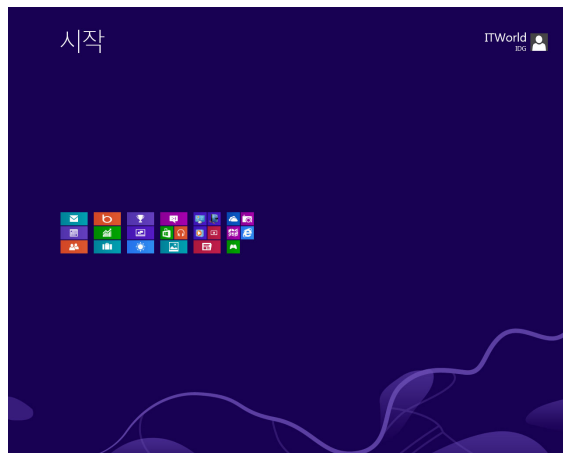
- **윈도우 키** : 타일 형태의 시작 화면으로 진입한다.
- **윈도우 키 + M** : 데스크톱에 표시된 모든 창을 최소화한다.
- **윈도우 키 + E** : 폴더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한 탐색기를 연다.
- **시작 화면에서 윈도우 키 + D** : 데스크톱으로 즉시 이동한다.
- **윈도우 키 + Tab** :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을 연다.
- **윈도우 키 + Print Screen** : 스크린샷을 찍어 사진 폴더에 있는 스크린샷 폴더에 저장한다. 윈도우 8 태블릿에서 스크린샷을 찍으려면 윈도우 버튼과 태블릿 본체의 볼륨 감소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된다.
- **윈도우 키 + Q** : 전체 검색 메뉴를 연다. 원하는 검색

어를 입력하고 찾을 위치를 선택하면 된다.

- **윈도우 키 + W** : 시스템 설정 내에서 검색을 열어 시스템 속성을 신속하게 찾아 변경할 수 있다.
- **윈도우 키 + F** : 파일 및 폴더 검색을 연다.
- **윈도우 키 + Pause** : 시스템 속성 페이지를 열어 신속하게 시스템 사양을 확인할 수 있다.
- **윈도우 키 + ‘.’(쉼표)** : 모든 현재 창을 투명하게 만들어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바탕 화면을 볼 수 있다.
- **윈도우 키 + ‘.’(마침표)** : 창을 화면 오른쪽 또는 왼쪽에 붙인다(‘.’를 누를 때마다 좌우가 바뀜).
- **윈도우 키 + R** : 실행 명령을 연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기타 루틴을 실행할 때 유용하다.
- **윈도우 키 + X** : 바로 가기 메뉴가 열린다. 여기에는 명령 프롬프트, 디스크 관리, 파일 탐색기, 실행 등의 시스템 기능이 모여 있다. 또는 화면의 왼쪽 하단 모서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도 바로 가기 메뉴가 열린다.
- **윈도우 키 + I** : 설정 메뉴를 열어 제어판, 개인 설정, 전원 버튼 등의 기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 **윈도우 키 + O** : 가속도계를 사용해 화면의 방향을 고정한다.

확대/축소

시작 화면은 각각 앱을 나타내는 커다란 타일들로 꽉 차있다. 타일의 수가 적을 때는 보기 쉽지만 수백 개의 앱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앱이 한참 스크롤해야 화면에 표시될 것이다. 이런 경우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시멘틱 중심 확대/축소 기능이다. 터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면 두 손가락으로 시작 화면을 꼬집듯 잡아당기면 화면이 축소되면서 전체 콘텐츠를 볼 수 있다. 마우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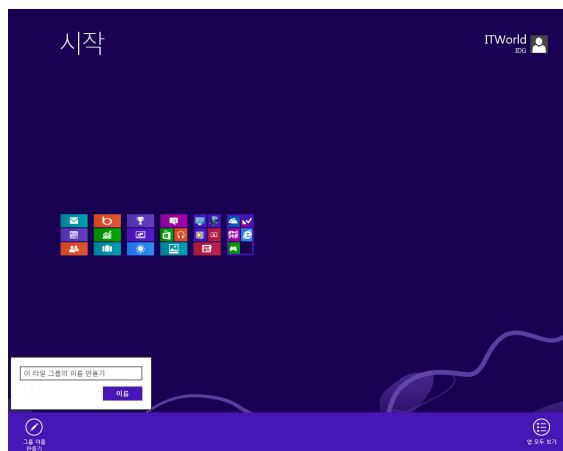
시멘틱 확대/축소를 사용하여 모든 타일과 그룹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보드 사용자의 경우 Ctrl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사용해 확대/축소하면 된다.

앱 분류

앱을 많이 설치하고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시작 화면에 타일로 고정하다 보면 시작 화면이 상당히 지저분해질 수 있다. 이럴 때는 내장된 정리 도구를 사용해 각 타일을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에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있다.

먼저 하나의 그룹에 할당할 모든 타일을 끌어다가 시작 화면의 맨 오른쪽 빈 공간에 놓는다. 다 모았으면 위에 설명한 시멘틱 중심 확대/축소 기능을 사용하여 데스크톱 전체가 표시되도록 한다. 이 상태에서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거나 아래쪽으로 손가락을 끌어서 하단 왼쪽 끝에 있는



시작 화면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

‘그룹 이름 만들기’ 옵션을 선택한다.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새로 정돈된 시작 화면을 즐기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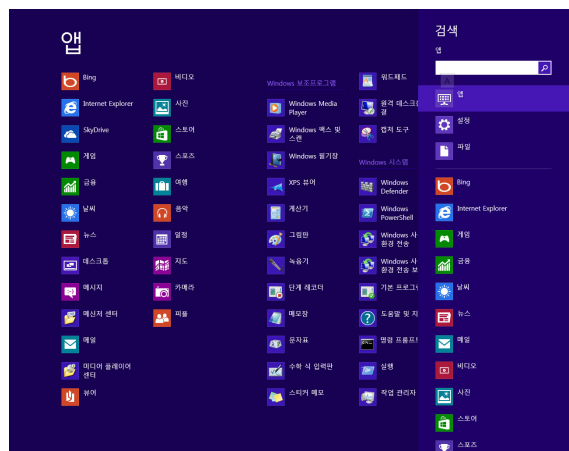
애플리케이션 종료

앱 종료는 말은 간단하지만 윈도우 8에서는 종료 버튼을 찾기 어렵다. 윈도우 8은 백그라운드에서 최소한의 리소스를 소비하면서 앱이 계속 실행되도록 두고 언제든지 다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앱을 꼭 종료하고자 한다면 마우스 또는 손가락을 화면 맨 위에서 맨 아래로 쓸어 내리면 된다. 쓸어 내리는 중간에 앱이 작은 모양으로 최소화되고, 맨 아래에 도달하면 종료되면서 사라진다. 또는 Alt + F4 조합 또는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도 앱을 종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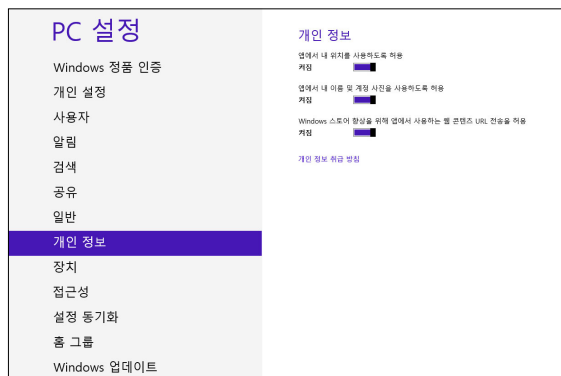
통합된 문맥 검색 활용

참(Charm) 메뉴 바에 위치한 검색 기능은 상당히 강력하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윈도우 8 시스템의 디렉토리뿐만 아니라 더 넓은 윈도우 생태계를 포괄해 검색할 수 있다. 추려낼 데이터 대상을 선택한 다음(설치된 앱 전체, 시스템 설정, 파일, 메일 메시지 또는 윈도우 스토어나 Bing 지도와 같은 외부 서비스까지 선택 가능) 키보드로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된다. 그러면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에 맞춘 검색 결과가 표시된다.



한 곳에서 모든 앱의 모든 요소를 검색할 수 있다.

게다가 참 메뉴 바를 건드리지도 않고도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작 화면에서 키보드로 입력을 시작하면 바로 검색 텍스트 입력 필드로 이동된다. 직접 해보면 알 것이다!



개인정보 설정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설정 조정

많은 앱이 상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접근하도록 만들어졌다. 사용자의 사진, 위치, 이름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많은 사용자가 이렇게 민감한 데이터를 시스템이 마음대로 다루는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 이 설정을 조정하려면 윈도우 키 + I를 누른 다음 PC 설정 변경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개인 정보 옵션을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설정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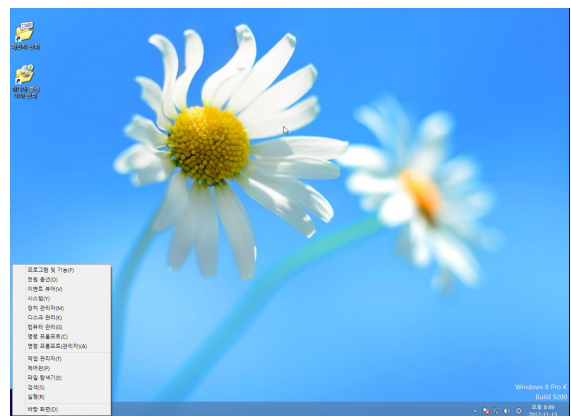
스마트스크린 설정 조정

스마트스크린은 인터넷에서 받은 인식되지 않은 앱이나 파일을 실행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능은 파일의 출처를 살펴보는 데



스마트스크린을 사용해서 원하는 보호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유용하지만 계속해서 경고가 표시되면 성가시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지만 단순 경고 또는 아무런 알림도 표시하지 않도록 손쉽게 조정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강력한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시작 화면에서 ‘보안’을 입력한 다음 설정 탭에서 ‘보안 상태 확인’을 찾는다. 여기서 윈도우 스마트스크린을 포함한 다양한 보안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고급 사용자를 위한 시작 버튼이 왼쪽 하단에 숨겨져 있다.

바로 가기 메뉴 불러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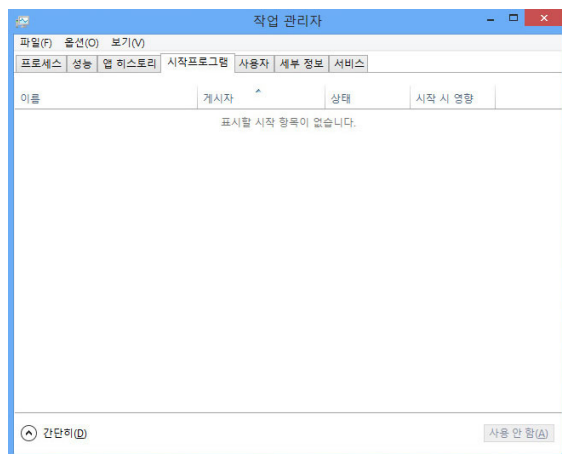
윈도우 8 시작 화면 또는 데스크톱 화면에서 왼쪽 하단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바로 가기 메뉴가 표시된다. 이 메뉴를 통해 디스크 관리, 작업 관리자, 장치 관리자 제어판을 포함한 다양한 주요 시스템 관리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윈도우 8 앱과 데스크톱을 동시에 사용하기

윈도우 8 환경은 윈도우 8 스토어 앱과 전통적인 데스크톱 앱으로 분할되는 특성 탓에 몇 가지 낯선 부분이 있다. 한 예는 다중 모니터로 시스템을 사용할 때 윈도우 8 앱이 주 화면에 표시되고 두 번째 화면에는 데스크톱이 계속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라면 왼쪽에는 모던한 앱, 오른쪽에는 전통적인 데스크톱 앱을 배열해서 두 가지 종류의 앱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화면 멀티태스킹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두 번째 화면에서 데스크톱을 사용하려고 하면 새로운 스타일

의 윈도우 8 앱은 사라지고 주 화면에도 데스크톱이 표시된다.

해결 방법은 있다. 주 화면에서 새로운 윈도우 8 화면 분할 '스냅' 기능을 사용해 데스크톱과 새로운 윈도우 8 스토어 앱을 함께 실행한다. 데스크톱은 왼쪽 일부분을 차지하고 윈도우 8 앱이 더 넓은 주 영역을 차지한다. 그러면 두 번째 화면은 전체 데스크톱 보기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스타일의 앱과 데스크톱 앱 사이에서 완전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것이다. 두 창 모두 충분한 크기가 확보되므로 실사용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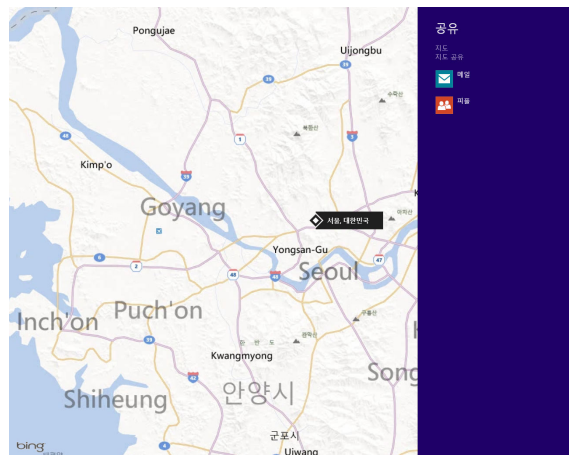
작업 관리자의 유용성이 크게 향상됐다.

작업 관리자에서 시작 항목 확인

더 이상 시작 항목을 변경하기 위해 MSConfig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작업 관리자의 탭에 시작 항목이 표시되기 때문이다. Ctrl + Alt + Del을 누르고 작업 관리자를 선택한다. 하단의 '자세히' 탭을 클릭하고 상단에서 시작 탭으로 이동하면 된다.

편리한 공유 기능

윈도우 8은 마이크로소프트 최초의 소셜 미디어 인식 PC 운영 체제다. 참 메뉴 바에 표시되는 공유 버튼을 사용하면 윈도우 8 스토어 앱에서 원하는 요소를 자유롭게 선택한 다음(지도 앱의 위치, 금융 앱의 뉴스 기사, 또는 피플 앱의 연락처도 가능) 이 항목을 다른 윈도우 8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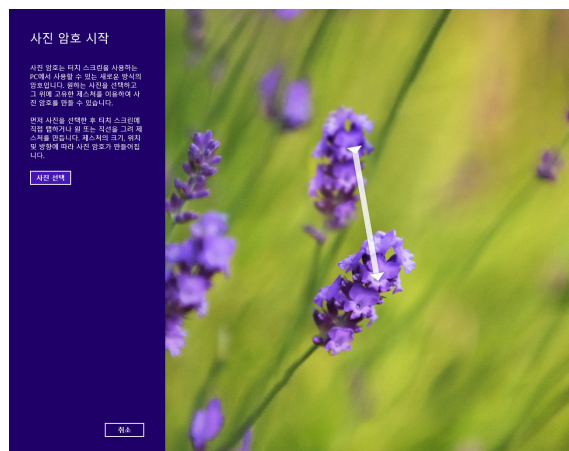


모든 앱에서 공유 참 메뉴를 즐길 수 있다.

가장 편리한 점은 이메일, 트위터 또는 사용 중인 스카이드라이브나 윈도우 폰을 통해 간단히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공유 버튼은 현재 상황을 인식하여 그에 맞게 작동한다. 많이 사용하다 보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앱과 그렇지 않은 앱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힌트: 데스크톱 앱은 참 메뉴를 통해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사진 암호 만들기

사진 암호를 사용하면 복잡한 암호를 기억할 필요 없이 재미있는 방법으로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윈도우 키 + I를 눌러 설정 참 메뉴로 이동한다. 오른쪽 하단의 'PC 설정 변경'을 누르고 사용자 탭으로 이동한다. '로그인 옵션' 아래에 '사진 암호 만들기' 버튼이 있



재미있는 시스템 보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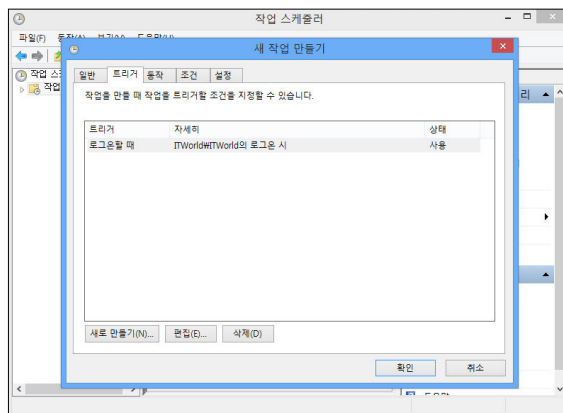
다. 이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사진을 선택한 다음 해당 이미지상에서 자유롭게 세 가지 제스처를 정의할 수 있다. 원 그리기, 쓸기, 클릭 제스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위의 이미지에서 가장 높은 야자수 나무를 클릭하고, 섬 주변을 도는 원을 그린 다음, 오른쪽 상단의 렌즈 플레이어에서 시작해 아래로 손가락을 쓸어 내리는 동작으로 사진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각 제스처의 방향이다. 같은 제스처를 두 번 반복해 확인하면 사진 암호가 설정된다.

앱 없이 데스크톱으로 부팅하기

윈도우 8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시작 화면으로 바로 부팅된다는 점이다. 많은 충직한 데스크톱 사용자들에게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타트8(Start8)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피할 수 있지만 아무 것도 설치하지 않고도 데스크톱으로 직행하는 방법이 있다.

시작 화면으로 가서 '예약'을 입력해 설정에서 예약 작업을 찾아 클릭한다. 왼쪽에서 작업 스케줄러 라이브러리를 클릭하고 작업 만들기를 선택한다. '데스크톱으로 부팅'과 같이 원하는 작업 이름을 정한다. 트리거 탭으로 이동해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 드롭다운 상자를 사용해 '로그온할 때'를 선택한다. 확인을 클릭하고 동작 탭으로 이동한다.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고 프로그램/스크립트 값에 'explorer'를 입력한다.



시작 화면을 생략하고 바로 데스크톱으로 진입한다.

확인을 누르고 작업을 저장하고 시스템을 재시작해서 시험해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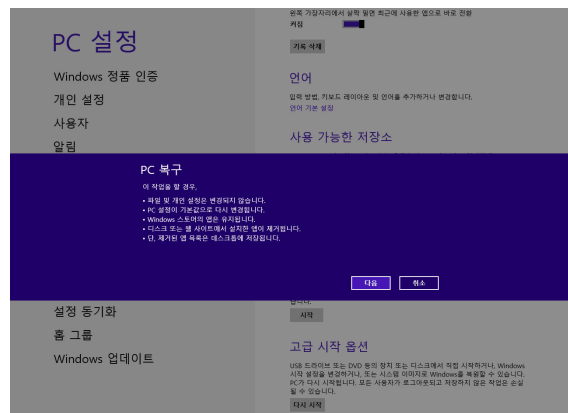
사용자 이름 또는 암호 없이 로그인하기

로그인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이름/암호 로그인 화면을 비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 실행 창을 열고(윈도우 키 + R) 'netplwiz'를 입력해 사용자 계정 대화 상자를 불러온다. 여기서 상단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야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음' 옆 확인란 표시를 지우고 확인을 클릭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면 이후부터 이 과정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PC 복구

시스템 속도가 느려졌다면 초기화를 통한 복구가 필요할 수 있다. 과거에는 윈도우 7 디스크를 찾은 다음 모든 현재 데이터를 백업하고 처음부터 설치해야 공장 출하 상태의 느낌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윈도우 8에서는 윈도우 내에서,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새 설치를 수행할 수 있다.

초기화 복구를 수행하려면 설정으로 이동해서 하단의 PC 설정 변경 탭을 클릭한다. 일반 탭을 선택한 다음 중간쯤 'PC 복구'를 볼 수 있다. (완전한 공장 초기화를 수행하는 '모든 항목을 제거하고 Windows 다시 설치' 옵션도 있음) '시작'을 선택하고 '복구'를 누른다. 몇 분 후 PC가 재시작되면 갓 설치한 윈도우 8을 즐길 수 있다.



데이터 손실 없이 PC를 초기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안전 모드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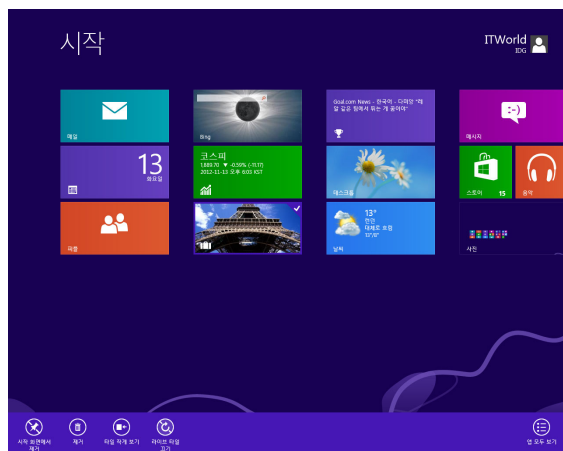
안전 모드는 어떤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시동이 되지 않을 때 시스템에 진입하기 위한 유용한 기능이다. 시스템 문제를 일으키는 드라이버와 파일이 로드되지 않으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전에는 시스템 시작 시 F8을 누르면 간단히 안전 모드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윈도우 8에서 같은 동작을 하면 자동 복구 모드로 진입한다. 예전의 유용한 안전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을까? 부팅 중 Shift 키를 누른 채로 F8을 누르면 된다.

그러면 복구 모드로 진입한다. 여기서 '고급 옵션', '문제 해결'을 차례로 선택하고 다시 '고급 옵션'을 선택한다. (고급 옵션이 많다.) 'Windows 시작 설정'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 버튼을 선택한다. 그러면 컴퓨터가 재부팅되면서 안전 모드로 부팅하는 옵션이 표시된다.

윈도우 내에서 안전 모드로 진입해야 할 경우 윈도우 키 + R을 사용해 대화 상자를 열고 'msconfig' (따옴표 제외)를 입력한다. '부팅' 탭을 선택하고 '안전 부팅' 상자를 선택한다. 다시 이 옵션을 불러내 이 상자의 확인란 선택을 지우지 않는 한 시스템은 계속 안전 모드로 부팅된다.

라이브 타일 켜기/끄기

시작 화면의 온갖 타일들은 예쁜 갖가지 색상에도 불구하고 생동감이 없어 보일 수 있다. 이럴 때 라이브 타일을 사용하면 된다. 라이브 타일을 사용



라이브 타일 옵션을 사용하면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볼 수 있다.

하면 앱을 열지 않고도 시작 화면에서 바로 실시간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날씨 타일에 현재 기상 상황이 표시되고, 메일 타일에 최근에 수신된 메시지의 제목이 표시된다.

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라이브 속성을 적용할 타일과 그렇지 않은 타일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하단에 표시되는 설정에서 라이브 타일을 켜거나 끄면 된다. 간단한 설정이지만 앱에 따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라이브 옵션이 없을 수도 있다.

윈도우 게임 폴더 찾기

윈도우 8에는 윈도우 7에 사용된 게임 폴더가 없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폴더에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신 PC 게임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폴더가 만들어진다. 이 폴더를 신속하게 찾으려면 시작 화면의 게임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하단의 '파일 위치 열기'를 선택하면 된다.

가족 보호 활성화

신용 카드에 알 수 없는 비용이 청구되는 사고를 피하고 싶은가? 시스템에서 자녀용으로 별도의 표준 사용자 계정을 만들면 된다. (관리자 계정에는 가족 보호를 적용할 수 없음) 가족 보호를 활성화하려면 제어판, 사용자 계정, 가족 보호로 이동한 다음 이 기능을 적용할 계정을 선택한다. 이 설정에서



어린이가 사용할 때도 마음 놓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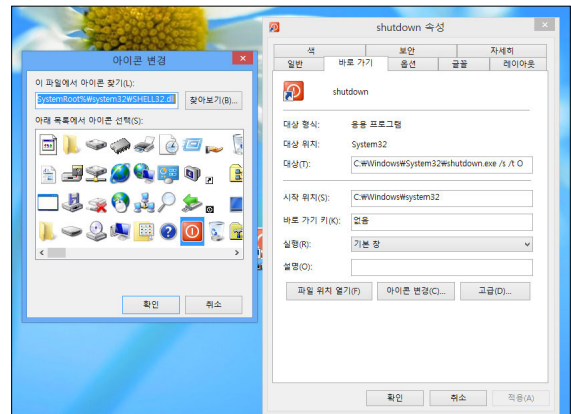
계정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 웹 필터링 수준과 시간 제한을 설정하고 윈도우 스토어, 게임, 앱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종료하기

윈도우 8에는 전원 버튼이 설정 메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PC를 끄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유용한 바로 가기 기능을 활용하면 데스크톱 하단에 종료 버튼을 배치할 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를 만든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바로 가기를 차례로 선택) 항목의 위치로 'shutdown /s /t 0' (따옴표 없이 입력할 것. 끝 문자는 '0'가 아니라 숫자 영임)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른다. 바로 가기의 이름을 정하고('종료'가 적당) 마침을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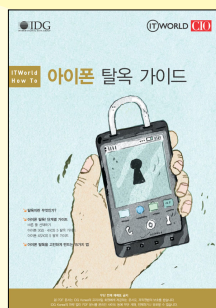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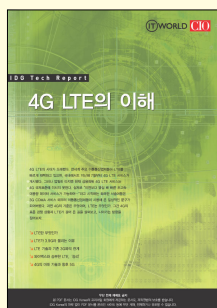
바로 가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으로 이동한다. 바로 가기 탭에서 아이콘 변경



손쉽게 종료 버튼을 만들 수 있다.

을 선택한 다음 경고 상자가 표시되면 확인을 눌러 닫는다. 목록에서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한다. 위 스크린샷은 전원 버튼을 선택한 모습이다.

바로 가기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시작 화면에 고정을 선택한다. 아이콘을 시작 화면의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 이제 아이콘을 클릭하면 컴퓨터가 바로 종료된다. **ITWORLD**



IT 트렌드 종합 정보센터

IDG Tech Library

IDG Tech Library는 IDG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전문 정보를 재구성하여 최신 기술의 기본 개념부터 현황, 전략 및 도입 가이드까지 다양한 프리미엄 IT 정보를 제공합니다. Computer World, Info World, CIO, Network World 등의 세계적 IT 유명 매체의 심도 깊은 정보를 무료로 만나보세요

IDG Deep Dive, Tech Focus, Summary, World Update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IDG(주)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108번지 창화빌딩 4층 100-161 Tel : 02-558-6950 Fax : 02-558-6955

www.itworld.co.kr www.twitter.com/ITWorldKR www.facebook.com/ITworld.Korea

제일 먼저 다운로드해야 할 윈도우 8 앱 1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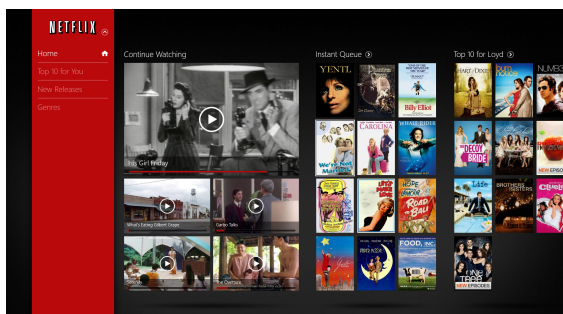
Alex Wawro | PCWorld

윈도우 8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앱이며,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맞는 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용자는 앱을 찾는 과정에서 수많은 엉터리 앱을 만나게 되며, 기본 앱이 충실한 윈도우 8 데스크톱 사용자는 사진을 보거나 웹 서핑을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필요없다. 이들 작업을 좀 더 잘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윈도우 8이 제공하는 모든 장점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윈도우 8용 앱 10가지를 소개한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메시지나 메일, 스카이드라이브, 스카이프 등 사용자의 기본적인 컴퓨팅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앱을 꽤 잘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다운로드를 해야 하는 뛰어난 서드파티 앱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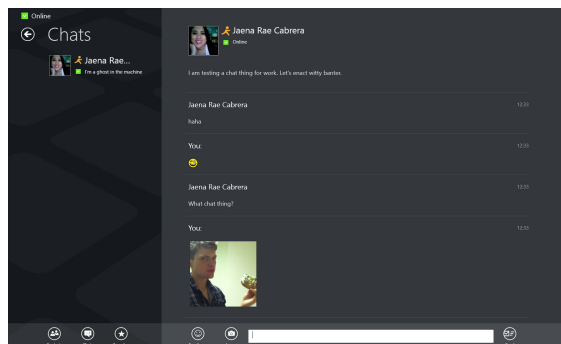
PCWorld는 윈도우 8 출시 시점에서 인기 윈도우 8 앱 수백 건을 가려내고, 다시 테스트를 한 다음 추천할만한 앱을 골라냈다. 물론 이들 앱이 사용자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겠지만(대표적으로 괜찮은 트위터 관리 앱을 찾지 못했다), 윈도우 8 PC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플릭스

윈도우 8용 넷플릭스 앱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터치스크린에서 좀 더 직관적인 내비게이션이 가능한 매력적인 타일 기반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기 쉽다. 앱을 통한 스트리밍 영화는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재생되기 때문에 시작 화면에 넷플릭스를 배치할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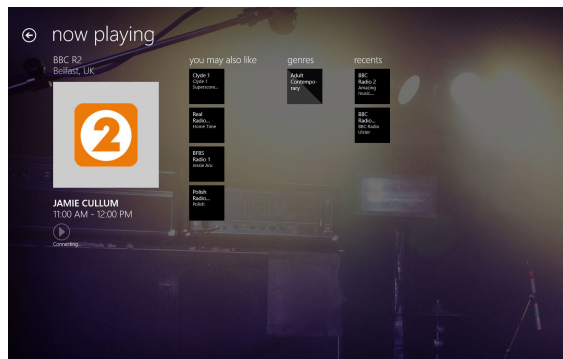


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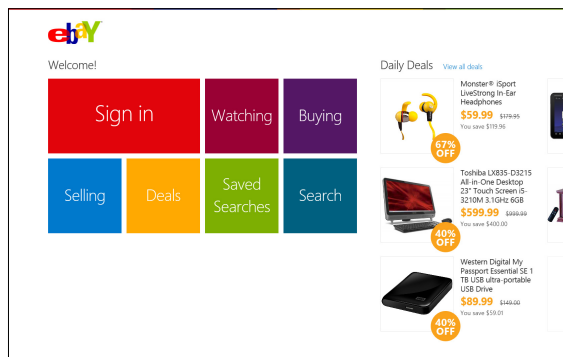
누구나 괜찮은 인스턴트 메시징 클라이언트를 필요로 한다. 물론 윈도우 8의 기본 메시징 앱은 기능적으로는 만족스럽지만, 윈도우 메신저와 페이스북 채팅 서비스만 지원한다는 점이 한계이다. 지원 범위는 앞으로 확대되겠지만, 지금 당장 서로 다른 네트워크(AIM, 페이스북, GChat, ICQ, 재버 등) 상의 모든 친구와 채팅을 원한다면, 셰이프(Shape)의 IM+를 사용해 보기 바란다. 무료이며, 다양한 메신저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알림 기능까지 제공해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에 관계없이 소셜 생활을 최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튠인 라디오(TuneIn Radio)

미국 내에 1만 4,000곳 이상의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데, 튠인 라디오는 이들 대부분의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전세계의 무수한 방송까지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웹 브라우저에서 좋아하는 라디



오 방송을 항상 틀어놓을 수 있는 한편, 튜인 라디오 오는 조그만 앱으로 수많은 AM/FM 라디오 스트림과 팟캐스트를 분류해 주는 멋진 작업을 수행해 준다. 음질도 뛰어나며, 재생이 끊기는 경우도 드물며, 라이브 타일을 통해 현재 재생하고 있는 방송 정보를 알려준다. 7만 개 이상의 토크쇼와 스포츠 방송, 뉴스 프로그램, 지역 라디오 방송, 팟캐스트 중에서 원하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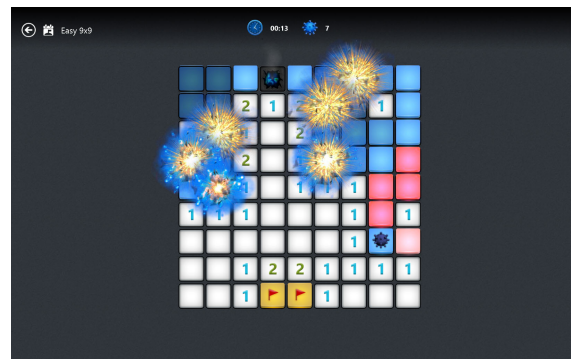


이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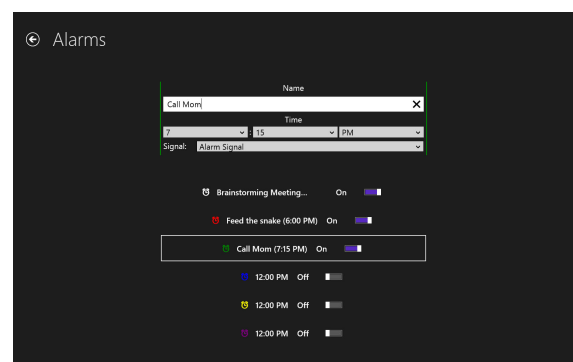
이베이 앱은 무료로 매우 아름답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윈도우 8 시작 화면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표준 이베이 웹 사이트보다 쇼핑객들에게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다. 앱을 이용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경매 물건을 정렬할 수 있으며, 이베이 검색 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시작 화면에 오늘의 거래 추적 프로그램을 고정해 주요 구매 기회를 펼쳐 놓고 한 눈에 볼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뢰찾기

윈도우 8은 아마 지뢰찾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버전일 것이다. 만약 지뢰찾기가 없어 아쉬운 마음이라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물론 지뢰찾기의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는 그대로이지만, 윈도우 8 버전 지뢰찾기는 신선한 색상과 함께 어드벤처 모드, 보물찾기, 온라인 리더보드, Xbox 라이브 계정 로그인 같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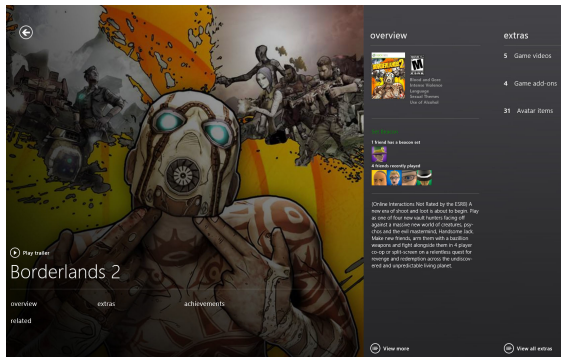


클락

주주바 소프트웨어(Jujuba Software)의 시계 앱은 시작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시간을 알려준다. 시계 앱이 왜 필요한가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가 현재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참 바를 끄집어 내지 않고는 시스템 시계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클락 앱은 무료이며, 메뉴를 끄집어 내지 않고 시계를 볼 수 있는 편리함과 함께 타이머, 스톱워치, 그리고 알람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글래스(Smart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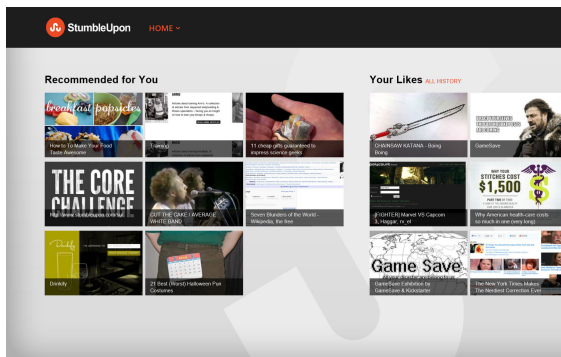
Xbox 360의 보조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



마트글래스 기능은 사용자가 시청하거나 플레이한 내용을 추적해 주고, 성취표나 추가 비디오 콘텐츠 등 보조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PC를 Xbox 360의 리모콘으로 사용해 스마트글래스 내에서 HDTV로 비디오 게임을 실행할 수도 있다. 스마트글래스는 이미 나와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8 출시와 함께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스텀블어폰(StumbleUpon)

스텀블러 사용자인 처음 사용해 보는 사람이건 스템블어폰 앱을 시작화면에 추가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스템블어폰은 온라인에서 흥미거리를 찾아내는 환상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윈도우 8 앱은 라이브 타일에 사용자의 취향에 맞춘 웹 사이트를 업데이트함으로써 다음에 볼 흥미로운 비디오나 기사를 찾는 것이 더 쉬워졌다. 또한 웹 사이트나 오디오, 비디오를 스템블어폰으로 공유 참(Share Charm)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우연히 발견한 흥미거리를 현재의 온라인 상태에 추가하는 최상의 도구이며, 완전히 무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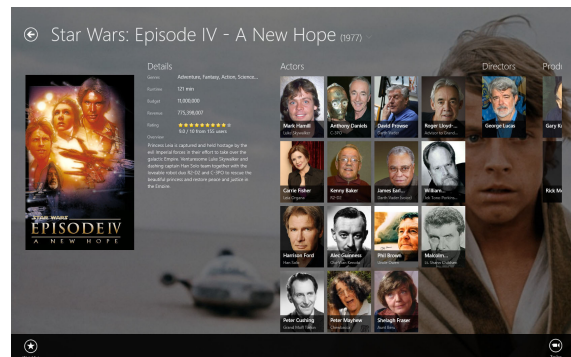


하우스터프웍스(HowStuffWorks)

하우스터프웍스 윈도우 8 앱은 기본적으로 하우스터프웍스 웹 사이트의 모든 멋진 기사와 비디오, 팟캐스트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것으로, 시작 화면에 배치하면 라이브 타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앱 자체는 사소한 버그가 많은데, 이는 윈도우 8 출시에 맞추려고 서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우스터프웍스는 시작 화면에 고정 배치할 가치가 있는 멋진 무료 앱이다.

무비가이드(MovieGuide)

첼케 엔지니어링(Zuhlke Engineering)의 무비가이드 앱은 영화광을 위한 편리한 도구로, IMDb의 영화 정보와 유튜브의 다양한 트레일러, 그리고 플릭스터의 목록 제작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조합했다. 영화나 배우에 대한 일부 정보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부실한 정보인 경우도 있지만, 훌륭한 디자인과 손쉬운 탐색 경로가 이를 보상하고도 남는다. **ITWORLD**



IDG Korea Contacts



Sales Contact

김성일, Eddy Kim

Tel: + 82-2-558-6939 Mobile: + 82-10-2702-0360

Email: sungil_kim@idg.co.kr

이포원, Tony (Pown) Lee

Tel: + 82-2-558-6924 Mobile: + 82-10-2053-2413

Email: tony_lee@idg.co.kr

양지은, Michelle Yang

Tel: + 82-2-558-6980 Mobile: + 82-10-9160-5454

Email: michelle_yang@idg.co.kr

CIO Editorial Contact

친신웅, Brian Cheon

Tel: + 82-2-558-9882 Mobile: + 82-10-3221-7824

Email: psy_cheon@idg.co.kr

박해정, Jenny Park

Tel: + 82-70-7725-9955 Mobile: + 82-10-2810-4518

Email: jenny_park@idg.co.kr

IT World Editorial Contact

박재곤, Jay Park

Tel: + 82-2-558-9887 Mobile: + 82-10-2782-6722

Email: jay_park@idg.co.kr

이대영, Dy Lee

Tel: +82-70-7725-9951 Mobile: +82-10-6511-8982

Email: dy_lee@idg.co.kr

박상훈, SangHun Park

Tel: +82-70-7725-6635 Mobile: +82-10-8310-0561

Email: sanghun_park@idg.co.kr

김현아, Hyuna Kim

Tel: + 82-2-558-6956 Mobile: + 82-10-8300-8511

Email: hyuna_kim@idg.co.kr

PR & Marketing Contact

김종민, Matt Kim

Tel: + 82-2-558-6079 Mobile: + 82-10-2408-4121

Email: matt_kim@idg.co.kr

박용학, Yong Park

Tel: + 82-2-558-6965 Mobile: + 82-10-4744-2823

Email: yongpark@idg.co.kr

